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환경과 우울에 관한 연구

김진아* · 이형실**1)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The Effects of Family and Peer Environment on Adolescents' Depression

Kim, Jin Ah* · Lee, Hyong-Sil**1)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Prof.,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family and peer environments on adolescents' depression.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667 second graders of middle school from Bucheon, Geonggi-Do and 633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indings suggest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n depression.

Second, male and female adolescents' depression were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relationship with parents, interparental conflict. Adolescents who had high peer victimization, less close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high level of interparental conflict showed high depression.

Key words: 청소년(Adolescents), 우울(Depression), 부모와의 관계(Relationships with Parents), 부부갈등(Interparental Conflict), 또래관계(Friendship Quality), 또래괴롭힘(Peer Victimization)

1) 교신저자: Lee, Hyong-Sil,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The Republic of Korea
Tel: 02-820-5397, Fax: 02-812-5311, E-mail: hslee97@hotmail.com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심리장애 중 우울은 임상적 우울을 가진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도 일상생활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무기력함, 신경과민 등으로 증상이 드러나는 성인과 달리 가면우울(masked depression)이라 하여 간접적이고 숨겨진 양상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우유부단, 음주, 약물사용, 집중력 저하, 극심한 무력증, 권태감, 학교성적 저하, 피로감 등의 신체증상, 기출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 등의 증후군으로 나타남으로써 진단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오경자, 1993).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행동과 결과에만 초점을 두나, 많은 청소년은 행동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 극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으며,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김인숙, 2004).

우울은 일반적으로 인생과 장애에 대한 비관, 불행감, 무기력, 죄의식, 무가치감, 자살에 대한 생각 등과 같은 증상을 포함하는데, 청소년기의 우울은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과 자살, 문제행동, 성인이 된 후의 정서장애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므로 그 심각성이 크다. 이와 같이 청소년 우울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동과 성인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우울이 청소년의 적응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을 적절히 세우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우울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기원,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우울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의 가족 환경 및 또래 환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환경 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갈등과 또래 환경 요인으로 또래 관계, 또

래괴롭힘의 요인을 들 수 있다. 가족환경은 청소년 개인의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의 심리, 행동 발달의 기초가 된다. 청소년의 강렬한 분노나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거부되고 버려졌다는 느낌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Cicchetti, Carlson, Braunwald, & Aber, 1987).

가족 환경 요인 중 부부 갈등 역시 자녀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자녀의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우울, 불안, 공격성 같은 부적응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부모간의 폭력을 보거나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우울 수준이 훨씬 높았다(신혜섭, 2002).

또한,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또래 환경이 있다.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울한 집단이 비우울 집단에 비해 남과 어울리지 않고, 또래친구 간에 인기가 없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또래친구가 없다고 느끼는 등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이고, 자기비하, 대인기피증 같은 부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박은조, 2000).

또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또래괴롭힘은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서 청소년의 부정적인 발달 및 부적응의 원인이 된다. 청소년 시기에 지속적으로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로움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학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게 하여 등교거부와 같은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으로 이어진다(양원경, 도현심, 1999; 임지영, 1998; 최미경, 도현심, 2000; 최진희, 2000; Olweus, 1993).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우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가족 환경으로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갈등, 또래 환경으로 또래 관계와 또래 괴롭힘이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부모나 교사가 청소년을 지도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우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족 환경(부모와의 관계, 부부 갈등)과 또래 환경(또래 관계, 또래 괴롭힘)은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좋지 못할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우울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전반이라는 네 가지 환경 중에서 청소년 개인과 가족 상황에서 가장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우울

우울은 슬픈 감정이나 침울한 기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장애이다. 우울은 정서의 강도가 심하고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통상 느끼기 쉬운 감정과는 다르다. 또한 우울에는 부정적 자기 개념, 의욕상실, 활동수준 저하, 주의집중 곤란 등의 장애가 수반된다. 이러한 우울은 정상인들이 스트레스 사건에 반응하여 나타내는 가벼운 우울 반응에서부터 특수한 의학적 장애로 인한 우울, 정신병적 우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이주은, 1996).

우울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적응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지각, 판단, 기억, 인지, 사고, 태도 등에서부터 대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이다. 우울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첫째, 우울은 정서적 증상을 동반하여, 우울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슬픈 감정과 외로움, 공허감을 느끼며, 흥미와 기쁨을 상실한다. 둘째, 우울은 인지적 증상을 동반하여, 우울한 사람은 자기 비난과 죄의식, 무가치함을 느끼고, 사고력과 주의력의 저하가 나타난다. 셋째, 우울은 생리적 증상을 동반하여, 우울한 사람은 불면증, 식욕감퇴,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한원선(1978)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이 외국의 청소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지역에 상관없이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이 심하고, 모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이나 문제 청소년에 비하여 우울이 낮다고 하였다. 심남철(2000)은 나이가 많을수록, 성적이 낮고 경제적 형편이

2. 가족 환경과 청소년의 우울

1) 부모와의 관계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거부할 경우, 청소년의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김애경, 2002). 또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적고 과보호가 많았던 집단에서 우울, 불안 등 모든 정신병리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유안진과 서봉연(1982)은 부모의 과잉보호는 수줍음, 불안, 초조감을 갖게 하고 신경질적이며 남에게 의존하려 하며 열등감 등의 행동을 나타내게 하는 반면에, 부모가 엄격하고 지배적이면 순종적이고 예의 바르지만 자신감과 용기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수용적인 부모의 자녀는 사회성이 발달하고 협동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지만, 거부적인 부모의 자녀는 반항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공격적이라고 하였다.

이정숙(1998)은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우울 수준이 낮다고 하였고, 김태련(1995)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수용과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유지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한다고 했다. 즉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부 갈등

부부 갈등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부부 갈등이 단순히 부부에게만 극한된 것이 아니며,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에게 있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김영희, 박희경, 조주영, 2004; Brody, Arias & Fincham, 1996). 부부의 이혼과 아동의 부적응 연구에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혼 자체보다 이혼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부부의 갈등이며, 이는 아동의 공격성, 비행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와 철회, 불안, 우울 등의 내면화 행동문제를 이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해결되지 못한 부부 갈등은 자녀의 가족 이외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어 자녀의 조화롭고 지지적인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ncham, Grych & Osborne, 1994; Harrist & Ainslie, 1998).

청소년이 접하는 가족 환경에 있어서 부부 갈등은 청소년 자녀의 행동장애, 불안, 공격성을 포함한 부적응 문제, 낮은 자존감과 등과 같이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홍성훈, 도현심, 2002). 정미진(2005)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 갈등이 더 심각하고 빈번하다고 보고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부적응이 심하였다. 김영미와 이명숙(1993)의 연구에서도 부부 갈등이 많을수록 불안과 우울, 비행 같은 자녀의 부적응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양돈규(1997)의 연구에서는 부부 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에 각각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또한 사회적 지지는 부부 갈등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완충작용을 한다고 밝혔다. 전정옥(2007)의 연구에서 부부 갈등은 자녀로 하여금 심리적 부적응을 높이며, 자녀가 보기에 부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지각한 청소년 자녀는 자기를 비난하여 자아개념이 낮아지게 되고 우울을 심하게 나타내거나 또래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서 본 그대로 감정을 표출하여 관계형성에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3. 또래 환경과 청소년의 우울

1) 또래 관계

최근에는 또래 관계의 질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자발적으로 맺어지는 이원적인 관계로 또래 관계의 깊이나 정도를 의미한다.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청소년은 학교 적응 및 학업 성취에서도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김윤경, 이옥경, 2001). 하지만 또래에서 수용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한 명 이상의 친밀한 단짝 친구를 가진 경우 외로움이나 우울, 학교 성적부진, 수업태만과 같은 부정적 결과가 줄어든다

고 하였다(Parker & Asher, 1993; Vandell & Hembree, 1994).

또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외로움, 사회적 회피, 학업성적이 낮고(김윤경, 이옥경, 2001), 유안진 등(2002)은 청소년의 또래 관계와 공격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공격적인 청소년은 친밀감, 관계 만족을 느끼기는 하지만 정서적 지지를 지각하지 못해 갈등, 무시, 일방적 주도과 같은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또래에서 수용 받지 못한 경험은 이후의 비행, 범죄, 약물남용 및 외로움, 사회불안, 우울과 같은 문제와 관련이 있다.

또래 관계가 원만한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적응을 잘 하는 반면에, 빈약한 또래 관계의 경험은 외로움,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한다(이미순, 1995).

2) 또래괴롭힘

또래괴롭힘이란 한 학생이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Olweus, 1978, 안재진, 이경남, 2002, 재인용). 또래괴롭힘에 관련해서는,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또래괴롭힘의 형태와 경험 수준, 또래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양상에 대한 연구가 있고(김정원, 2000; 김희화, 2002; 양원경, 도현심, 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친 부정적인 결과와 그 심각성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들이 있다(임지영, 1998).

박은조(2000)는 중학생의 우울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우울한 집단이 비우울집단보다 남과 어울리지 않고 또래 친구 간에 인기가 없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또래 친구가 없다고 느껴서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고, 자기비하와 대인기피증 같은 부정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부적응은 단지 또래괴롭힘을 받는 그 시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청년기나 성인기의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gan & Perry, 1998; Olweus, 1993).

또래괴롭힘에 대한 최근 연구들 중에는,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Hoover & Hawler, 1992)도 있으나, 많은 연구들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또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010년 5월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남녀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문항내용과 질문의 순서 및 응답 방식을 일부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는 중학교 중 남녀공학 중학교 5개를 선정하여 전체 6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 중 부실 기재된 34부를 제외하고 남학생 317명, 여학생 316명 총 633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갈등, 또래 관계, 또래괴롭힘, 우울과 조사 대상자 및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안수영(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Parker와 동료들(1979)이 제작한 PBI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토대로 총 5문항으로 수정한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의 갈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찬란(2005)이 사용한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사용하였다. CPIC는 부부 갈등상황에서의 행동과 갈등상황 이후의 행동에 대한 10개의 문항이다. 부부의 갈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부 갈등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친구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친구 관계에 대한 기능적 특성 척도를 15문항으로 재구성한 안수영(200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친구 관계에 관한 문항은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친구 관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구 관계의 질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양원경과 도현심(1999)의 또래괴롭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Wiggins와 Winder가 개발한 PNI(Peer Nomination Inventory)를 토대로 수정한 것으로, 각각 또래평가, 교사평가, 자기보고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보고에 의한 평가 7문항을 사용하였다. 또래괴롭힘에 관한 문항은 최저 7점에서 최고 3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괴롭힘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래괴롭힘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현재의 우울을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 보고하는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척도는 임상적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CES-D를 수정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우울 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울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과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우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족 환경과 또래 환경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 대상자 중 남학생은 317명(50.1%), 여학생은 316명(49.9%)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형제자매 수는 자신 이외의 형제자매 수가 1명인 경우가 426명(67.3%)으로 가장 많았

고, 출생순위는 첫째가 308명(48.7%)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자는 한 달 용돈을 1만원 이상에서 3만원 미만을 쓰는 경우가 274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 소득은 한 달 소득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93명(30.5%), 3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73명(27.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36명(21.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은 41세 이상 45세 이하인 경우가 274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6세 이상 50세 이하인 경우가 222명(35.1%)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41세 이상 45세 이하인 경우가 310명(4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6세 이상 40세 이하인 경우가 5명 (26.1%)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고졸인 경우가 335명(53.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졸인 경우가 150명(23.7%)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고졸인 경우가 391명(61.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졸인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N(%)	
성별	남	317(50.1)	
	여	316(49.9)	
총 형제자매수	외동	80(12.6)	
	2명	426(67.3)	
	3명	108(17.1)	
	4명	16(2.5)	
	5명 이상	3(0.5)	
출생 순위	첫째	308(48.7)	
	둘째	269(42.5)	
	셋째	51(8.0)	
	넷째 이상	5(0.8)	
용돈	1만원 미만	194(30.6)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274(43.3)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132(20.9)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	21(3.3)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2(1.9)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34(5.4)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36(21.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93(30.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3(27.3)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5(8.7)	
	500만원 이상	42(6.6)	

경우가 113명(17.9%)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147명(2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판매서비스직이 120명(19.0%)이었다. 어머니의 경우는 주부인 경우가 205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서비스직이 152명(24.0%)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2. 성별에 따른 청소년 우울의 차이

남녀 청소년 우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울은 평균 20.9점(범위 10~50)으로 나타나 척도의 중간값(25점)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중학교 청소년의 우울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우울은 18.9점, 여자 청소년의 우울은 22.8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5.2, p<.001$).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남자 청소년의 우울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김윤정, 1999; 심남철, 2000; 이정선, 2006; 정주영, 1986; 한원선, 1978)와 일치한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이은아, 2000)와는 다르게 나타난 결과이다.

3.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관련 요인의 영향력

청소년이 인지하는 가족 환경과 또래 환경이 청소년의 우

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다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가족 환경과 또래 환경의 영향력을 분석한 중다선형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남자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갈등, 또래괴롭힘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34$ 이다. 또래괴롭힘이 남자 청소년의 우울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beta=.36, p<.001$), 그 다음으로는 부모와의 관계($\beta=-.26, p<.001$), 부부 갈등($\beta=.20, p<.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괴롭힘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부모와의 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 갈등이 심할수록 남자 청소년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또래괴롭힘, 부부 갈등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R^2=.23$ 이다. 또래괴롭힘이 여자 청소년의 우울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beta=.29, p<.001$), 그 다음으로는 부모와의 관계($\beta=-.27, p<.001$), 부부 갈등($\beta=.14, p<.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은 또래괴롭힘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부모와의 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 갈등이 심할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청소년은 또래괴롭힘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부모와의 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 갈등이 심할수록 청소년들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래괴롭힘,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갈등이 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청소년 모두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또래괴롭힘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

요인	전체			남자			여자			t
	N	M	SD	N	M	SD	N	M	SD	
우울	633	20.9	9.5	317	18.9	8.8	316	22.8	9.8	-5.2***

*** $p<.001$

〈표 3〉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우울					
	전체		남		여	
	B	β	B	β	B	β
부모와의 관계	-.26	-.25***	-.26	-.26***	-.28	-.27***
부부 갈등	.25	.20***	.23	.20***	.18	.14*
또래 관계	.11	.08	-.04	-.03	.10	.06
또래괴롭힘	.40	.30***	.40	.36***	.45	.29***
상수	13.09		16.63		17.82	
R ²	.25		.34		.23	
F	52.58***		40.86***		23.81***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우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가족 환경으로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갈등, 또래 환경으로 또래 관계, 또래괴롭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부천시에서 총 5개의 남녀공학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2학년 6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청소년의 우울,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갈등, 또래 관계, 또래괴롭힘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 중 부실 기재된 34부를 제외하고 남학생 317명, 여학생 316명, 총 633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또래괴롭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청소년 모두 또래괴롭힘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부모와의 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 갈등이 심할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첫째, 남녀 청소년 모두 또래요인 중 또래괴롭힘 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요인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또래친구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시기로, 청소년은 또래 집단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또래 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 청소년 초기에는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보다는 적대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어 또래간의 부정적 평가에 민감해지면서 또래간 부정적 상호작용의 한 유형으로 또래괴롭힘을 경험하기가 쉬운데, 소수의 또래 집단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시 받을 경우 청소년 우울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학교 및 부모 모두 청소년 자녀의 또래 관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의 우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한 또래 관계의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상담을 통해 또래괴롭힘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 환경 요인인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갈등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 환경 요인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청소년의 우울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우울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가족의 영역에서 벗어나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과

접촉이 많아지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경험의 확대로 인하여 부모자녀관계가 긴밀하지 못하기가 쉬운데, 이 시기에 부모와 자녀 간 관계를 잘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가족구성원 서로의 관심과 애정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의 고민과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열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부 갈등이 청소년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는 부부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갈등을 잘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가족 환경과 또래 환경이 청소년의 우울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우울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우울은 가족 환경과 또래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의 우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중학교 2학년으로 제한되었고 지역이 경기도 부천시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집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과 가족 및 또래 환경간 관련성을 규명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차원적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족환경과 또래환경 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한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과 부모의 원만한 가족 관계와 긍정적인 또래친구 관계의 형성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가정과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영미, 이명숙 (1993). 가족구조와 부모불화가 청소년자녀의 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6(2), 210-215.
- 김영희, 박희경, 조주영 (2004). 가족간의 갈등과 인성특성이 청소년의 내면적·외면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 연구**, 8(2), 83-95.
- 김윤경, 이옥경 (2001).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 65-82.
- 김인숙 (2004).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우울성향과의 관계.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 (2000).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련 (1995). **청소년기의 특성과 발달과업**. 서울: 배영사.
- 김희화 (2002).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친구지지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2), 47-60.
- 박기원 (2009).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조 (2000). **중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찬란 (2005). **가족환경요인 및 개인심리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섭 (2002). 한국에서의 가족치료이론의 적용. **생활과학연구**, 6, 133-141.
- 심남철 (2001). **청소년기 우울증의 치유방안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희옥 (2000). 또래지지와 대인관계 갈등 대처방법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429-444.
- 안수영 (2007).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진, 이경님 (2002).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9-20.
- 양돈규 (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원경, 도현심 (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8.
- 오경자 (1993). *심리적 부적응 및 대처방안*.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유안진, 김진경, 한유진 (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 이미순 (1995).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아 (2000). *청소년의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심리적 및 행동적 부적응*,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선 (2006). *청소년의 개인 및 가족 요인과 우울간 관련성*.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1998).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 성향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지영 (1998).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진 (2005). *부모간 갈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 부적응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 이미숙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15-126.
- 정주영 (1986).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비행과의 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 도현심 (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1(3), 85-105.
- 최진희 (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관계에 끼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원선 (1978). *한국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성훈, 도현심 (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2), 145-157.
- Brody, G. H., Arias, U. & Fincham, F. D. (1996). Linking marital and child attributions to family proces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 408-421.
- Cicchetti, D., Carlson, V., Braunwald, K. G., & Aber, J. L. (1987). Gelles, R. J., & Lancaster, J. B. (Eds.). *Child Abuse and Neglect*, 277-315.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 Psychology*, 34, 299-309.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y Bulletin*, 92, 310-330.
- Fincham, F. D., Grych, J. H., & Osborne, L.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Harrist, A. W. & Ainslie, R. C. (1998).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 interpersonal awareness as mediators. *Journal of Family Issues*, 19(2), 140-163.
- Hoover, J. H. & Hazler, R. J. (1992). Bullying: Perceptions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3, 5-16.
-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 315-341). Hillsdale, NJ : Erlbaum.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Radloff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e Psycho Measurement*, 1, 385-401.
- Vandel, D. L. & Hembree, S. E. (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0, 461-477.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고, 가족 환경과 또래 환경이 청소년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우울,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갈등, 또래 관계, 또래괴롭힘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구성하여, 경기도 부천 시내 5개의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 6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633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우울은 낮은 편이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가족 환경과 또래 환경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는 또래괴롭힘,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청소년 모두 또래괴롭힘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부모와의 관계 수준이 낮을수록, 부부 갈등이 심할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1년 5월 4일, 논문심사일자: 2011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6월 28일